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누름꽃 만들기 체험하세요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 자활근로 사업단 제주7장은 자활근로 사업의 안정화, 참여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자립자활을 위해 압화강사를 양성하고, 강사로 양성된 참여주민이 진행하는 누름꽃(압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양성된 참여주민들은 도 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

해 사회복지기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누름꽃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역량을 펼치는 기회와 동시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주의 꽃과 식물을 알리고, 자연에서의 친환경 정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결정권 향상 인권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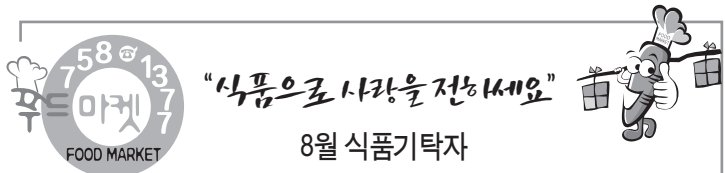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현성훈)는 상반기 성교육에 이어 인권교

육을 실시한다.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인권교육은 인권의 의미를 비롯해 권리이해 및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첫 회기에서는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미영 부장이 ‘나와 상대방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정환씨=비타민드링크 1상자 ▲안신희씨=가지 등 열매채소 41개, 잎채소 3kg ▲금강수산유통=꽂치 30kg, 오징어 40kg ▲금강축산유통=육류 164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프락=떡 515개 ▲대성냉동=쌀 400kg ▲동원F&B제주=식재료 955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432모 ▲압암영농조합법인=빵 60봉 ▲이든이네=멸치 10.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4kg ▲자연드림이도점=빵 77봉 ▲제주보리존=보리빵 129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00팩 ▲존샘봉사회=잡쌀 고추장 1kg 80개 ▲파리마켓동광초점=빵 435봉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쌀 2000kg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7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96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875,000	875,000
복지사업후원	1,020,000	165,000
푸드마켓후원	2,635,000	4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5일까지 사회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 위문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위문·봉사와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등 따뜻하고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도 내 사회복지시설 103개소 4000여명과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다문화가

정 등 3000여 가구에 총 2억 2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100여명은 지역의 소외계층 가정을 발굴하여 직접 위문하고 격려에 나섰으며, 도 소속 물사랑 자원봉사단 등 10개 동아리에서도 자매결연 시설과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봉사, 세탁봉사, 주거환경정비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석 명절에도 생활 여건이 어

려워진 소외계층을 대상을 각급 기관·단체,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정성어린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도 복지청소년과(710-2811),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760-2531)로 문의하면 어려운 가정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물품후원도 가능하다.

‘모드락모드락 영화아카데미’ 개강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지난 7월 19일 (주)작은영화제작소 돌맹이 필름과 함께 미래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드락모드락 영화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모드락모드락 영화아카데미’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기 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교육은 구좌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총 16명이 신청해 영화로 이야기하기와 단편영화제작과정, 시나리오작법, 연출, 촬영, 연기, 편집 등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이후 직접 만들어낸 아이템으로 단편영화를 만들어 국내 청소년 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064-784-8280)으로 하면 된다.

비장애형제·자매 정서지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2014년 장애인가족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장애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프

로그램 ‘힐링체험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4회기에 걸쳐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낙농체험을 비롯해 요리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을 하며 비장애형제자매들 간의 공감과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정서 심리적 지지 등을 통해 역할별적 상처를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제3차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달 21일 도청 제2청사 세미나실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34개 단체와 함께 ‘제3차 전문자

원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동아리, 단체 등을 발굴하여 ‘전문자원봉사단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문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격려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7) - '사회적기업 엘린을 찾아서'

행복한 엘린! 행복한 나의 JOB!



▲몽생이기자단은 지난 8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엘린'을 방문해 한봉금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햇빛이 뜨겁게 내려쬰는 8월의 어느 날, 몽생이 기자단 2기는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을 다녀왔습니다.

엘린은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꿈꾸는 곳입니다.

근로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 훈련, 취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업안정을 통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기반과 지역 사회에서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린은 호텔엘린과 엘린클린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 60명 중 45명은 장애인, 15명은 비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 직업교육 및 청소 기술을 배워 전문적으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호텔엘린은 숙박업을 하는 곳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 객실과 휠체어도 대여해 주고 있으며, 제주도내에서 숙박위생점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튼튼한 관광제주만들기 캠페인 숙박분야에서 최우수업체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몽생이기자단 2기도 직접 호텔엘린에 가보니 무척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호텔과 다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아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엘린클린은 청소용역업을 하는 곳으로 아파트, 빌라, 계단 등을 청소하며 도내 최고 석재관리기술과 전문적인 장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세재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친화적, 인간 중심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엘린은 2014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호텔엘린과 엘린클린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고용, 직업교육과 훈련, 상담 등 체계적인 직업재활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에 노력하여 받은 표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엘린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제주도내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⑬

오해하기 쉬운 법률상식



양영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이번 달에는 오해하기 쉬운 법률상식 내용을 되짚어 보며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죄를 지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

외적으로 친고죄(간통죄, 모욕죄 등)와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한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개정 형법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채업자의 협박·폭행을 처벌할 수 있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방문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적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

면 증인을 확보해 두거나 전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가출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종종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려해도 예전의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거주지도 모르고 생사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6개월 동안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잘못된 법률상식이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가출만으로는 저절로 이혼이 되지 않으며, 부부가 합의하거나(합의이혼),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만(재판상 이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송달 등의 문제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한 뒤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변제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 혹은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거래명세서나 통장 내역으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대여조건을 명시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of Home doctor

법률홍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홍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주)삼다유통,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삼다수 기부 5만병 돌파

삼다유통(주)(공동대표 김두하/김성훈)의 삼다수 기부가 5만병을 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삼다유통(주)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90만원 상당의(2리터) 삼다수 300팩을 꾸준히 기부해 지금까지 푸드마켓 이

용자 약 9200여명, 금액으로는 2500백만 원 가량의 삼다수를 무료로 공급 받았다.

1998년부터 삼다수 대리점으로 선정되어 16년간 제주 삼다수 등을 유통하고 있는 삼다유통(주)은 푸드마켓 뿐만 아니라 도내 10개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현금 및 물품 후원을 하고 있다. 삼다유통(주) 측은 “제주도 공기업 대리점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관심과 사랑에 지속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위한 문화 힐링 ‘놀멍 뚝멍 느끼멍’



노인의료시설 제광원(원장 이성덕)은 2014년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놀멍 뚝멍 느끼멍’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와상 어르신을 위한 음악치료를 비롯해 장구민요, 난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르신들은 평소 다루기 어려운 악기를 접해봄으로써 정서적 안정 및 문화체험을 즐기고 있다.

소/식/마/당

2014 시설종사자 워크숍 개최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달 7일부터 8일 1박 2일 일정으로 조직활성화를 위한 2014년 시설종사자 워크숍을 대명리조트 등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사자들의 성격과 기질파악을 위한 MBTI 검사를 실시했다. 기질에 따른 업무능력을 다양화에 대한 이해와 발의된 주제에 대해 비슷한 유형끼리 회의 및 발표시간을 가지며 동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너의 꿈을 보여줘! Tell 해 Vision!’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위탁 중·고등 학생 40명과 함께 ‘2014 자립캠프: 너의 꿈을 보여줘! 텔레비전(Tell 해 Vision)’을 개최했다. 이번 자립캠프는 아동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 기간동안 참가자들은 방송, 수의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만나 직업을 체험했으며, disc검사를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꿈 공장’ 2회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달 20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14명과 함께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 공장’ 2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제주웰컴센터를 방문해 제주관광공사의 역할과 관광 종사원이 하는 일을 살펴봤다. 또 제주웰컴센터를 돌아보면서 제주도 관광산업에 대한 자료들도 접할 수 있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추석선물세트 판매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주산 청정나물세트를 추석을 맞이해 판매한다.

특유의 맛과 영양, 향이 가득한 고사리(80g) 2팩, 취나물(80g) 2팩 세트를 3만원에, 고사리(80g)와 취나물(80g) 2팩 세트도 3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고사리와 무말랭이 1팩 세트를 담아 16000원에 파는 행사를 진행 중이며, 건조농산물 2종, 4종세트로 구성해 포장도 가능하다.

한일문화 교류의 장 가져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일본 지적장애인 핸드벨 공연팀인 ‘송사리 패밀리’와 한일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송사리 패밀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제16회 핸드벨 세계대회를 참석한 후 정혜재활원을 찾았다.

송사리 패밀리는 핸드벨 공연을, 정혜재활원은 신통방통 공연단 댄스, 난타공연을 선보이는 등 서로의 문화를 선보이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저시력시각장애인 손으로 가방 만들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은 저시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패션재봉교육 사업을 시행 중이다.

상반기에 걸쳐 진행한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시력상실 이전의 재봉경험과 잔존시력을 활용해 가방과 파우치, 쿠션, 앞치마 등의 생활용품 제작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기기사용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반복연습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음악치료 ‘내 마음이 들리니?’ 실시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중증장애인의 마음치유와 사회성 향상을 위한 행복한 음악치료 ‘내 마음이 들리니?’를 시행 중이다.

음악치료사가 진행하는 음악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활력을 주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직업재활을 위한 제과제빵 프로그램 진행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부설) 뽕엘(원장 임주리)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거주인들의 직업재활능력을 향상을 위한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거주인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빵, 과자,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구입한 음식들은 취약시설에도 나눠주고 있다.

‘나의 언어와 당신의 언어로’



제17회 전도수화경연대회가 오는 9월 27일 제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막을 연다.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회장 박준근)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6개 팀 200명이 참가해 ‘나의 언어와 당신의 언어’라

는 주제로 노래,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수화 언어들이 펼쳐진다.

도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화경연대회를 통해 수화가 한국어와 동일한 언어로써의 기능과 상호 유대관계 형성, 농아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최근 수화기본법 제정 준비에 맞춰 언어 소수자인 농아인과의 소통의 장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무료관람이며,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Job코디사업 캠프 ‘나의 미래를 설계하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내 고등부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캠프를 실시했다.

기초체력검사 후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의 자신감과 협동심을 향상시키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

련된 이번 캠프는 조별활동과 자기 주도적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Job코디사업은 생애 전환기에 있는 고등부 장애청소년들의 본인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장애인 체험형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가롤로의 집(원장 김정숙)은 지난 7월부터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체험형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4년 장애인복지기금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요리기술 습득을 위한 리활동 프로그램 ‘쿠킹타임’을 비롯해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이미지관리 프로그램 ‘체인지 美’, 원예기술 습득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야채텃밭 & 실내의 식물가꾸기’, 문화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사진 활동 프로그램 ‘풍경앨범’으로 구성됐다.

“어르신 안부전화 드림수다”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경화)는 도내 노인자원봉사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흥운경로당(회장 김석진)을 ‘독거노인 안부전화-은빛콜노인자원봉사클럽’으로 지정했다.

대한노인 중앙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지역운영본부 맞춤형 특화사업에 선정된 흥운경로당은 노인자원봉사

자 13명을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총4회에 걸쳐 전문상담 교육을 이수한 후 제주시 용담2동 독거노인과 노인자원봉사자 1대1 결연을 통해 주1회 이상 안부전화와 격주 1회 정기적인 가구방문 활동을 펼쳐 독거노인들의 소외와 고독을 해소하고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

성이시돌요양원 무연분묘 벌초 봉사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작은세상봉사단(단장 김홍수)은 소속 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지난달 10일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찾아 성이시돌요양원 무연고 묘지 50여기의 벌초 봉사활동을 전개

했다. 벌초 봉사활동은 2008년부터 매년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앞두고 성이시돌요양원 무연고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나를 찾아 떠나요’ 캠프 진행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나를 찾아 떠나요’ 캠프를 진행했다.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나이트케어’ 사업 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과 도담도담 봉

사단 등 26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도내 서부지역인 한라수목원, 테지움, 서귀포 매일올래시장 등을 돌며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기획사업으로 재가방문서비스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이하 당·빛·별)’를 지원한다.

‘당·빛·별’은 중증장애인, 재가노인, 시각장애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재

가복지대상자(사회복지시설대상자 포함)의 생일에 예술재능기부자가 직접 찾아가 예술활동을 펼치는 ‘생일축하’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www.jcaf.or.kr) 홈페이지 또는 문화진흥팀(800-9157)로 문의하면 된다.

칼럼

큰 그림 속 작은 그림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4년여에 걸쳐 완성한, 길이 36미터, 폭 13미터에 등장인물만 300여 명이 나오는 천장화 (우리에게는 ‘천지창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음)가 그려져 있다. ‘아담의 창조’는 이 천장화의 일부인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손가락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을 담은 ‘아담의 창조’가 워낙 유명한 그림이다 보니 우리는 전체 그림보다는 ‘아담의 창조’만으로 미켈란젤로를 기억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이 나왔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정책’으로 통합·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찾은 인사이동, 복지계획 수립 문제

이와 더불어 현재 전국의 각 시·군·구 및 시·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의거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복지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데 있다. 어쩌다보니 1기부터 3기 계획까지 모두 참여하게 되었는데, 1기 계획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2기 계획은 예산 반영이 어려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험이 있어 이번 3기 계획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

그러나 계획수립 완료료를 한 달여 남겨두고 공무원 인사이동이 대거 이루어져 복지계획 수립 TF팀 구성에 일대 변화가 생기고 말았다. 복지관련 계획이 성공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나 할까. 정작 3기 계획이 시행도 되기 전에 4기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개선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형국이 되어버려 아쉽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제도 정책 중요

지역의 복지계획이든 국가차원의 계획이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큰 그림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제도와 정책은 작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그림 여럿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룰 때 크거나 작은 크기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에서 보았듯이, 때로는 전체를 담은 큰 그림보다 그 일부를 이루는 작은 그림이 더 유명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고

장애인부모가 행복한 세상



강순영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제주행복기자단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호칭을 달고 살아간다. 가정에서는 아무개의 아들(딸), 누구의 남편(아내), 누구의 엄마(아빠), 회사에서는 대리, 팀장, 국장 등. 하지만 이 모든 호칭을 떠나 온전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많다.

장애인부모는 이런 호칭외에 장애자녀의 부모라는 꼬리표를 하나 더 달고 살아가야 한다.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장애아

이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부모의 바람과 달리 우리아이들의 상태가 그리 빨리 호전되거나 기적처럼 어느 한순간에 나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부모들의 심정은 무너져내리고 절망에 몸부림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들은 평생동안 아픈 자식을 끌어안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견뎌야 하고 아이로 인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장애인 부모일 것이다.

장애인부모 중에는 참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자식이 아프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해 줄 대상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자신의 숨겨진 재능

마저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 전쟁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장애인부모의 현실이다. 나 역시 장애인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주위의 장애인부모들과 접하면서 장애인부모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음악을 통해 장애인부모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 더 나아가 장애인부모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다른 장애인부모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장애인부모가 행복해야 장애아동들도 그 기운을 받아서 장애로 인해 비록 불편은 하지만 결코 불행하지는 않은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론

참 착한 오뉴



김길웅
시인·수필가

유기농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고3 오빠와 중3 여동생이 있어 화제다. 경기 가평 청심국제 중고 조용하 군과 여동생이 35가지 작물을 재배하면서 반찬을 만들어 위기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것. 3년째란다.

동기가 있었다. ‘홀로노인의 고독사’ 뉴스의 충격에서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나눔농원’이란 이름까지 달았다 한다.

“아이들 제안에 고민했는데, 큰 애가 이 일로 사춘기를 극복하는 등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됐다” 조 군 아버지의 귀띔이다. 친구들이 동참하다 빠져나가고 결국 부모와 네 식구가 동업자(?)가 됐다.

고구마 순 볶음, 깻잎장아찌나 겉절이 등 신선하고 좋은 반찬을 만든 뒤 위기 가정 18가구에 배달하고 있다. 6월부터 도시락 423개를 전달했다는 것인데, 주말에 작물을 가꾸고 반찬을 만들고 했으니 적은 것인가.

‘나눔농원’으로 시작된 나눔의 의미

그들은 반찬을 팔아 봉사활동 기금까지 만들기로 했다 한다. 옥수수를 삶아 학교 축제 때 파는 등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도 운영해 매출을 올렸다는 것. 수익금은 전기료가 없어 선풍기도 돌리지 못하는 가정을 돕는 데 썼다니 가슴 뭉클하다.

누이는 도시락 배달로 알게 된 위기가정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등 재능기부까지 하고 있다지 않는가.

요즘 이 착한 오뉴에게 고민이 생겼다. 둘이 대학과 고교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원 운영이 문제로 떠올랐다. 후배들이 나서 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다. “농원 운영을 계기로 대학에 가면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조 군의 말이다.

각박하다 하나 선행이나 미담도 적지 않은 세상이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더욱이 대입·고입이 목전인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그들 오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리라 굳게 믿고 싶다.

역행하는 경우는 왜 없는가. 자녀의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불쏘시개로 삼는 학원들의 ‘선행학습 마케팅’이 고개를 쳐든 지 오래다.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없다.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심지어 중1에게 대학과정인 ‘정수론’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 한마디로 ‘미친 사교육’이 아닌가. 어린 자녀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선행을 도와 준 부모는 덕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오뉴, 참 착하다.

도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 '사회복지 좌담회'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적극 반영 해야



사회복지현장 중간관리자 이상 12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결과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임기 중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원희룡 도정이 앞선 도정의 사회복지 정책에 비해 큰 틀에서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며, 특히 협치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도정 준비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에 사회복지계가 제안한 아젠다 내용 대부분이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도정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게 나온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경미 소장**은 “민선 6기 도정운영 방식으로 제시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승남 사무국장** 역시 “아젠다 포럼에서 개최한 도지사 후보자 초청 간담회 당시 원희룡 후보가 제안한 협치의 형태는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협치’가 현장의 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부분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원희룡 도정에서 얘기하는 ‘협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협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석왕 원장은 “아직까지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협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먼저 제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고보선 교수**는 “‘협치’의 방법에 대해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으며, **고현수 대표**는 “사회복지분야의 ‘협치’가 반드시 사회복지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 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위원장 박정해)에서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설문결과에 대한 해석과 6·4지방선거에 따른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운영 평가, 앞으로의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사회복지 좌담회’를 개최했다. (위 사진) ‘사회복지 좌담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도정이 제시한 ‘협치’ 개념 정리 필요 지속적인 요구와 평가도 이뤄져야



박정해 원장
(무지개마을)



고보선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수희 부원장
(평안전문요양원)



고승남 사무국장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고현수 대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경미 소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양창오 원장
(제주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정석왕 원장
(제주장애인요양원)

용자, 일반 도민들도 사회복지분야의 ‘협치’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설문조사결과 사회복지계와의 협치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 ‘사회복지직능단체장과 정기적인 협의’를 선택한 응답이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현수 대표는 “‘사회복지직능단체장과 정기적인 협의’는 협치의 방법이 아니고 회의구조 정도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김경미 소장**은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전달할 통로로서 직능단체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

라며, “직능단체의 개별적인 요구가 산발적으로 제시되면 ‘협치’의 과정이 민원해결수준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협치’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창오 원장**은 “이번 좌담회에서 ‘협치’에 대해 논의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앞서 제기된 심층 인터뷰와 타운홀 미팅, 난상토론 형식의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6·4지방선거 기간 운영된 ‘2014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 운영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도정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강화를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4 아젠다 포럼」은 「2010 아젠다 포럼」과는 달리 준비기간이 짧았으며, 「2010 아젠다 포럼」의 성과와 운영 노하우 등이 이어지지 못한 점과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눈에 띄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고수희 부원장은 “2010년, 2014년 아젠다 포럼 운영에 따른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한계를 받아들이고 2018년도 아젠다 포럼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논의구조를 만들어 아젠다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소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아젠다 제안창구를 운영해서 다양한 아젠다를 제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승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계가 제시한 아젠다가 공약사항으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임기 중 지속적인 요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고보선 교수**는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젠다가 발굴될 수 있다”며, “아젠다 내용 역시 사회복지분야별 이익보다는 도민사회 전체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리 = 김성건 부장(도협의회 사회복지정책위원회 간사)>

2014 제주 나눔 대축제

함께 꾸며갈 개인·단체·기관의 신청을 받습니다

「2014 제주 나눔 대축제」는 나눔과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나눔과 기부가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되고 그로인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0월 11일(토) ~ 12일(일) 제주 종합경기장 내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Fax. 702-3383 / E-mail. jejubokji@empas.com)로 제출
- 신청기간 : 9월 15일(월)까지

■ 참가분야

부스운영 (부스크기 : 5m×5m, 몽골천막 1동)

종 류	운영부스	내 용
공감하는 나눔	10동	다름에 대한 이해, 나눔의 필요성과 가치 등을 각종 체험을 통해 공감하는 부스 (장애인·노인·임산부·다문화 체험, 소방안전체험, 기부식품 포장체험 등)
참여하는 나눔	14동	사회복지시설·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마을과 기업에서의 나눔실천 방법을 나누는 홍보 부스 (후원, 기부, 자원봉사 등 관련기관 참여)
함께하는 나눔	7동	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소액거래, 물물교환 장터인 벼룩시장 (예술인,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단, 수제품, 재활용품만 가능))

※ 부스운영기관은 참가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부스운영기관에는 300,000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 부스운영기관은 10월 11일 오전 11시부터 10월 12일 오후 5시까지 부스를 운영하여야 하며, 부스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주관처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여행사와 공연

종 류	내 용
도전하는 나눔 도민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참가팀 모집	■ 최종 선정된 각 순위별 상금을 팀이 지정하는 곳에 팀 이름으로 기부하는 행사 ■ 각 종목별 팀당 20명(남 10명, 여 10명) ■ 참가규모에 따라 리그전, 토너먼트전 결정 ■ 경기일정 : 나눔대축제 행사 2일째(11일) 오전 10시
노래하는 나눔 나눔 콘서트 공연팀 모집	■ 도민을 대상으로 열린 무대에 참여하여 공연을 원하는 단체 ■ 연주, 독창, 밴드, 합창 등 나눔 콘서트에 함께하고 싶은 기관, 개인, 예술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공연 일정 : 나눔대축제 행사 첫날(10일) 16시

■ 참가문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Homepage : www.jejubokji.net TEL : 702-3783~4